

이웃종교 RELIGION

‘하나의 마음’으로 화쟁하자

종교청년협, 종교 갈등 극복 포럼 열어

7대 종단이 한국의 종교, 사회의 화합과 상생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종교청년협의회(사무총장 강명규)는 7월 15일 천지일보 세미나실에서 ‘종교, 사회 과연 상생의 길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언론인 이규원씨의 사회로 김성영 전 성결대총장(개신교), 정용상 동국대 법대 학장(불교), 윤법달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원불교), 유영욱 경기대 국제대학장이 발제에 나섰고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 언론인 신민형씨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성영 총장은 발제에서 “3·1 운동 당시 주요 종교단체는 종파를 초월한 협력의 미덕을 발휘해 조국 독립에 대한 희망의 사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계와 정부는 종교편향의 빌미를 줄 수



7월 15일 7대 종단 지식인들이 모여 종교 갈등 극복 포럼을 열었다.

있는 일체의 정책이나 언행을 삼가야 모든 종교계가 마음껏 사회를 구제하고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상 학장은 발제에서 “한국 사회는 종교다원주의의 전형적 양상을 띠는데 불행하게도 지역적 교리논쟁이나 정부의 종교편향정책 등을 통해 심각한 종교갈등 및 사회갈등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에 ‘하나의 마음’으로 화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

효의 ‘화쟁사상’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천도교 김동환 교령, 이완희 성균관 재단이사장, 이창환 성균관 관장, 신대호 회장(세계집구연합회 부주석), 원불교 김진태 운영위원, 개신교 이주영 목사(글로벌 대학교 부부장) 등 각종 지도자들이

을 비롯한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종교청년협의회는 불교·개신교·가톨릭·원불교 등 7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종교간 관용과 조화를 목표로 2008년 11월에 창립됐다. 현재 각 종단을 대표해 10명의 청년운영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교지도자들의 정기적인 대화모임 주선 △‘종교상생포럼’ 운영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제안 등 정책자료 지원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간 협력사업 전개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은은 기자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때”

미래목회포럼 ‘크리스천과 죽음’ 토론회가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문제와 김 할머니의 존엄사와 관련해 개신교인들이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끈다.

한국교회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차세대 목회자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미래목회포럼(대표 신화석 목사)은 7월 10일 제11회 정기포럼 ‘크리스천의 죽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열었다.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죽음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권수 목사는 개회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보면서 크리스천의 죽음은 어떠해야 하

는지 생각할 필요를 느꼈다”며 “죽음, 자살,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강연을 맡은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는 “지금 한국사회는 죽음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죄지 않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별 언고도 없으면서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의식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노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

해서 죄의식이 강박관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정호 목사(대전세로남교회)는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서 기복교에서 조의를 표하는 뜻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공연은 ‘우주의 꽃 생명의 꽃’이라는 주제로 일본장애인 판 토마리 극단(湖南 龜組)을 초청해 장애인 합동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우주의 꽃 생명의 꽃’이라는 주제로 일본장애인 판 토마리 극단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초청공연에 앞서 승가원자비복지재단과 원심회 두드림은 합창과 난타공연 등을 선보인다. 소년 카메구미 극단은 일본 도쿄의 남부지역 가나가와(神奈川)현을 중심으로 활약 중인 일본장애인 판 토마리 극단이다. 한편, 승가원자비복지재단 사(사이전장 에이브지연합회 합창단은 소년카메구미 극단과 7월 26일 15시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도 합동 공연할 예정이다. (010) 5118-2437

이은은 기자

“4대 서비스 실천 명품 복지관 되겠다”

연꽃마을,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 7월 16일 개관식 봉행

연꽃마을이 어르신들을 위한 또 하나의 명품복지관 만들기

에 나섰다.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최근 서초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 이하 복지관)의 개관식을 7월 16일 봉행했다.

연꽃마을이 어르신들을 위한 또 하나의 명품복지관 만들기

에 나섰다.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최근 서초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 이하 복지관)의 개관식을 7월 16일 봉행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커팅식(왼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복지관 전경 (오른쪽).

해 어르신들이 공경받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개관식에 이어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 김봉이를 시작으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실버밴드와 강남민속무용단 등 공연 팀이 화려하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한편 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기업들의 재정적 지원이 잇따라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관장은 “복지관 4대 서비스 정신인 ‘항상 친절바르게, 정성스럽게, 밝은미소로, 참신하게’를 실천



이은은 기자 bohnyung@buddhapia.com

이유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서초구에 기부했다. 또한 박찬준 KI 파이낸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도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2000만원을 기부, 차후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124㎡(약 947평) 규모로 이·미용실, 당구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장기바독실, 다목적실, 서예실, 주간보호센터 등의 공간을 갖춰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돕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복지관은 영유아 보

육시설도 마련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영유아 5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서정어린이집’이 복지관에 마련돼 장애우아의 보육 소외현상을 방지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를 주 사무소로 하는 법인단 수탁운영에 참여하게 해 경인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단체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연꽃마을은 경기도에 법인사무소를 두고 있음에도 20여 년간 노인복지 분야에서의 탁월한 운영노하우를 인정받아 이번 수탁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대해 각현 스님은 “경기 도지역에 한정돼 있던 연꽃마을 노인복지사업을 서울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복지노하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은은 기자 bohnyung@buddhapia.com

한·일 장애우 협동 연극 24일 전통문화공연장서

24일 전통문화공연장서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들로부터 성립된 깊은 화합의 마당이 열린다.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은 7월 24일 19시 30분 종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일본의 쇼난 카메구미(湖南 龜組) 극단을 초청해 장애인 합동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우주의 꽃 생명의 꽃’이라는 주제로 일본장애인 판 토마리 극단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초청공연에 앞서 승가원자비복지재단과 원심회 두드림은 합창과 난타공연 등을 선보인다.

소년 카메구미 극단은 일본 도쿄의 남부지역 가나가와(神奈川)현을 중심으로 활약 중인 일본장애인 판 토마리 극단이다. 한편, 승가원자비복지재단 사(사이전장 에이브지연합회 합창단은 소년카메구미 극단과 7월 26일 15시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도 합동 공연할 예정이다. (010) 5118-2437

이은은 기자

부산 최초 정주도우미사업 실시

물문대 종합사회복지관 7월 10일 발대식

물문대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정연, 이하 복지관)은 부산 지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 복지관은 7월 10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후회회가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주도우미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23명의 정주도우미가 참가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북한법제센터 순행선 위원이 진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정주도우미의 필요성과 활동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정주도우미사업은 최근 부산 사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5년 북한주민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사업’에 이어는 것이다. 정주도우미들은 생활필수품, 지역 사회인식 등 기초 적응을 마친 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서적·문화적·취업안내 등의 지원을 도와 지역사회에 적응시키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부산에서 처음 생기는 사업이나 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51)264-9033

이은은·이은정 기자

동국대 경주병원 해외봉사활동 활발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랑 봉사단과 경주병원이 각각 해외에서 활동한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이런 봉사활동에서는 아홉 당 짓기, 페인트칠, 벽화보수, 하수도 정화 등을 했다.

동국대 경주병원 봉사단(단장 정필현)은 6~12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에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봉사활동은 경주병원과 경주병원 불교회와 공동 주관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1세기 새마을운동 국제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동섭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아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경계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공팔)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페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데진 스님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계 철야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철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펼칠 때 학인들을 개요(開語)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습니다.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셔서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은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마련을 위한 교재로 하고 선생님의 도반이시자 제자이신 보림사 회주 묵산스님께서 지도 해 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09년 7월 28일(화) 오후 8시부터 2009년 8월 3일(월)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4동 약수길 17-1호)
- 회 비 : 일반 9만원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준비물 : 간편한 잠복,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 하차 정릉 청수정행 143, 162, 1012, 1013 → 대우아파트 하차(돈암역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산 합장
보림회 서울지부장 청봉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뺄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뺄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